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와 관광 플랫폼’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본부 설립 1년... 중단기 미래비전 설정·전북 마이스 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성과·개선점 살펴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3년 부 체제를 출범한지 일 년이 지났다. 재단은 3기 출범과 함께 문화와 관광의 동반성장을 모토로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와 관광 플랫폼’이라는 경영비전을 내걸었다. 그리고 본 부별 책임경영 및 성과창출과 미래조직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2021년 5월 10일, 3년 부(경영, 문화예술, 관광)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관광본부의 신설은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미약했던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타 광역 시도와 경쟁이 가능한 지역관광 전담기구로서의 환경을 마련했다.

이에 관광본부는 일 년 동안의 성과와 개선점을 살펴 지역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감소 조직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계기를 갖고자 한다.

■전북관광 중·단기 비전체계 정립
관광본부(이하 본부)는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전북관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대한민국 5대 관광도시 진입, ▲전북관광 10대 거점 육성 및 명소화, ▲세계 50대 마이스(MICE) 개최도시 진입의 4대 중·단기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확정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단순 홍보마케팅 영역에서 벗어나 ▲콘텐츠 개발 전문가, ▲홍보마케팅 전문가, ▲융·복합 사업 전문가, ▲관광 역

심주체 발굴·육성 전문가 등 4대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관광전담 조직으로의 변신을 꾀했다.

■국내 RTO 최대 국비 공모사업 선정(4개 사업, 152억)
본부는 출범과 동시에 2022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최근 15개 광역 관광전담기구(RTO) 중 최대의 국비사업을 유치하는 쾌거를 올렸다. 2021년 하반기부터 총 4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5년, 100억), ▲소풍관광 활성화(4년, 50억), ▲지역마이스활성화(매년 약 2억),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0.6억) 등 약 15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마이스(MICE) 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본부 개편 후 가장 눈에 띈 성과를 꼽자면, 척박한 전북 마이스(MICE) 환경에 신규 사업 발굴과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마이스 경쟁력을 향상시킨 노력들을 꼽을 수 있다. 본부는 2021년 7월 광역시·도 마이스 전담기구인 전북마이스뷰로(Jeonbuk MICE Bureau)를 신설함으로써 매년 국비 확보가 가능한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코리아마이스얼라이언스, 한국마이스협회,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등의 정회원 가입을 통해 전북 마이스 유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사업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본부 개편

후 신규 사업, 전북도 이관사업, 국비 공모사업 등 총 9개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K-컨벤션육성·지원사업, 지역마이스활성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사)한국PCO협회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 2천 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재원을 다각화 했다.

지역과 상생하는 마이스 협력 체계도 빼놓을 수 없다. 본부는 2021년 11월 산·학·관 협의체인 ‘전북스마트마이스얼라이언스’를 발족해 현재까지 43개 기관·단체 회원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을 통한 마이스 유치·개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SG 관광사업 선도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가 바로 ESG 경영 실천이다. 기업과 기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재무적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투명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과 기관의 사회적·윤리적 책임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본부는 일찍이 전국 15개 RTO 기관들과 함께 ESG 경영실천 결의를 선언하고,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저감 노력 및 친환경 여행상품 개발을 약속했다. 올해 본부는 ESG 연계사업으로 ‘2022 탄소중립 ESG 친환경 전북여행 사업’을 추진한다.

■초 광역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경계를 넘어)
그동안 단기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도내 일부 기관과 협약을 맺었던 재단은 본부 설립 후 수도권, 전라권, 충청권과 초 광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영역을 확장했다. 수도권 연계 협력으로는 서울관광재단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국내·외 마이스(MICE) 공동 마케팅 교류 협약을, 전라권으로는 광주·전남·전북 간 전라권 관광·마이스 활성화 교류 협약을, 충청권은 한국관광공사·대전관광공사·충청남도관광재단·전라남도관광재단과 초 광역 관광 활성화 협업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6개 후속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 소상공인회, 국립공원공단, 익산·고창문화관광재단 등 지역기관 관광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2022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국제 콘퍼런스 유치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바로 ‘지속가능성’이다. 세계적인 숙박 예약 시스템 부킹닷컴(Booking.com)이 작년 6월, 전 세계 30개국 2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3%의 응답자가 ‘지속가능성’을 여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단도 시류에 맞게 올 4월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정회원 가입을 완료

하고 지속가능한 전북 관광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본부는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TC),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등과 공동 유치작업을 통해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아시아·태평양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확정했다.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TC)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2002년 UN 세계생태관광의 해 20주년, 2012년 UNWTO 제4차 세계생태관광총회 10주년 기념의 의미를 갖는 중요성을 띄고 있다.

■인력 및 예산 지원 절실, 전국 최하위 벗어나...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최근 3개월간 ‘작년 동 기간 대비 지역 별 외지인(국내·외국인) 방문자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5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치로 ‘위드코로나’로 접어든 급속한 환경 변화의 시기와 맞물려 전북 관광의 밝은 미래를 반영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전국 15개 광역 관광전담기구(RTO), 12개 광역 컨벤션뷰로(CVB) 중 전담인력과 예산이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 15개 RTO 중 최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하반기 개소를 앞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한옥마을 연계 소풍관광 활성화사업 및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아시아·태평양 콘퍼런스 등 재단 관광본부가 실행해야 할 굵직한 단위 사업은 산적해 있다.

재단은 전북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전북이 나아가야 할 관광의 새로운 역할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한편, 본부는 2022년 5월 10일, 3년 부(경영, 문화예술, 관광)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관광본부의 신설은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미약했던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타 광역 시도와 경쟁이 가능한 지역관광 전담기구로서의 환경을 마련했다.

이에 관광본부는 일 년 동안의 성과와 개선점을 살펴 지역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감소 조직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계기를 갖고자 한다.

“하늘에 수놓는 환상의 에어쇼 만나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김제지평선축제 축하 비행 확정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다시 한 번 찾아온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될 지평선축제 기간 중 10월 2일 오후 2시 김제시 심포럼 일원에서 블랙이글스 비행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관광객들의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블랙이글스는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구성되어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으로 지난 2012년 영국공군주관 최대 에어쇼인 워딩턴 국제 에어쇼와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인 로열 국제 에어쇼에서 수상의 영광을 누리는 등 세계 최고 공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작년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찾은 많은 관광객에게 큰 감동



을 선사했던 블랙이글스를 이번 축제에도 만나 볼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곳, 김제지평선축제에 오셔서 블랙이글스가 하늘에 수놓는 장관을 감상하시고, 다양하게 준비한 프로그램을 즐겨 평생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문화재단, 우수작품시리즈 ‘Fantasie’

내달 11일 첫 시리즈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2년 우수작품시리즈 ‘Fantasie’의 첫 번째 무대를 오는 6월 11일 오전 11시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3회 운영되는 ‘Fantasie’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연주와 해설을 시작으로, ▲7월 23일 하모니스트 박종성과 기타리스트 박지형, ▲11월 19일 색소포니스트 브랜든최와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출연할 예정이다.

‘Fantasie’ 시리즈의 첫 번째 주자인 피아니스트 조재혁은 ‘쇼팽 스페셜’ 무대로 시작을 알린다. 경쾌한 주제 멜로디와 쇼팽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두드러지는 쇼팽 즉흥곡 1번으로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며, 이어지는 발라드 전곡에서 그의 뛰어난 테크닉과 섬세한 연주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이나 전화(063-280-704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음악과 제28회 협주곡의 밤

군산대학교 음악과가 현대음악연구소와 함께 제28회 협주곡의 밤을 개최한다. 오는 24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되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 음악회는 군산대학교 재학생들이 출연하여 펼치는 무대로, 베르디의 서곡, 라이네케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 베를리오즈의 ‘신아여, 평화를 주소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등의 레퍼토리가 준비되어 있다. 지휘는 군산대 양희정 교수, 악장은 박유나 학생이며, 전미란, 박희진, 고예진, 장정운, 김조예, 양유정, 김지원, 박모세 등 음악과 재학생들이 출연한다.

박경우 예술대학장은 “출연자들이 서로 다름을 조화롭게 조율하여 이 무대가 감동의 선율로 어우러짐을 전해주는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했고, 최명훈 음악과장은 “이 연주회가 힘겹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주고 봄의 싱그러움을 느끼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관관 기자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농업 발전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 확장

지역사회 상생 발전 지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

NH농협이 앞장섭니다